

“古都 경주를 지키자” 여론 확산

고속철 통과 國監서도 반대... 불국사 주지 무기한 단식

불국사 주지 설조스님이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노선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기도에 들어가는데 교계의 고속철도심통과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지난날 25, 26일 문체부와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공보위소속 의원들도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관련기사 6면)

지난달 27일 단식에 들어간 설조스님은 “경주 고도보존을

촉구하고 있는 양심적인 시민을 매도하는 경주시 당국과 일부 시의회의원들을 준엄하게 꾸짖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국사 등 경주지역 30개 사찰도 설조스님의 단식에 동조, ‘경주는 옛모습 그대로’ ‘고속철도는 외곽으로’라는 대형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불국사 정도법당 경주경실련 등 경주지역 13개 신행 및 시민단체는 지난날 26일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연대모임’을 발족, 고속철도의 경주시 외곽통과를 주장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도 28일 ‘고속철도 경주통과 전면백지화를 위한 홍보와 현수막 설치’ 공문을 전국 사찰에 시달렸다.

태고종 총무원도 같은날 ‘고속전철 경주시 통과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고속전철의 대구~부산 구간 직선화를 촉구했다.

한편 25일 문체부 감사에서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 건설에 따른 문화재훼손 문제가 집중 거론됐으며 특히 박종용(민자) 이환의(민자) 정상용(국민회의)의원 등이 경주노선의 전면백지화를 주장했다.

주둔식 문체부장관은 이에 대해 “고속전철의 경주도심통과 시 문화재 훼손이 예상돼 외국

노선이 채택되도록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지하화구간의 연장 안 △제방위에 철로를 놓는 안 △교량높이를 낮추는 안 등 3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외국노선 채택이 불가함을 시사했다.

〈김재경 기자〉

이사·결혼기피등 윤달풍속 ‘문제’

지난달 25일부터 4년만에 시작된 윤달로 인해 요즘 사회각처에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윤달을 피해 결혼과 이사를 앞당기거나, 미취업 사회의 통상적인 질서를 흐리고 있다. 또한 윤달을 이용해 상술을 채우려는 상인들의 유혹에 현혹된 일부 불자들이 값비싼 수의까지 무분별하게 사들이고 있기도 한다.

심지어는 윤달이 오기전에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출산일까지 앞당기는 일

은 옛부터 불교의 한 방편으로써 담으로 얻은 달을 수행에 더욱 전념하자는 의미에서 삼사순례, 예수제 등의 윤달 불사를 진행해 온 것”이라며 “불자들은 상업주의적인 사회현상에 편승하지 말고 윤달을 맞아 더욱 기도 정진해 바른 신생활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달을 맞아 일어나는 현상들에 휩쓸리지 말고 불자로서 더욱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교계의 스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은자 기자

365일 부증불감...속설에 편승 말아야

각 사찰은 예로부터 윤달을 맞아 3사순례, 천도재, 생전에 수재등 각종 행사를 펼친다. 또한 민간에서는 윤달은 액이 없어 미리 수의를 마련하는 풍습도 전해오고 있다.

이같은 사회현상에 대해 법현스님(원각사 주지)은 “윤달

‘사찰등급배정 시행령’

조계종 첫 입법예고...분담금 차등배정

1천7백80여개에 달하는 조계종 사찰이 사적에 따른 등급이 부여 각 등급에 맞는 분담금이 배정된다.

조계종은 지난달 27일 ‘사찰등급배정에 관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및 말사로 등급이 구분, 각 사찰의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사찰규모·입지조건·사찰환경개선 여부 등을 고려, 본사 21개 등급, 말사 29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심사위원회의와 본사 주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사

위한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찰등급배정’에 관한 시행령(안) 예고는 이 제도의 첫 시행이다.

‘불교청소년의 해’ 제정

기획위원회 결성모임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불기 2540년 불교청소년의 해’ 제정에 관한 기획위원회를 지난달 27일 조계사 불교문화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 제정에 따른 교법사단, 전국교사불자회, 청소년교화연합회등 유관단체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12월 운영위원회(가칭) 구성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기획위원회 원장에 원혜스님(포교부장)이 추대됐다.

훈련병 2천여명 수계

논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는 지난달 24일 법당 뜰앞에서 훈련병 수계식을 거행했다.

매일 1회 열리는 이번 훈련병 수계식에서는 2천5백여명의 훈련병이 참석했으며 이중 2천여명이 계를 받았다.



구례 화엄사는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부처님사리를 비롯 불구 일체를 언발까지 일반에 공개한다.

화엄사 사리친견 인파 줄이어

서오층석탑 발견 22과 전시...사진전도 열려

구례 화엄사(주지 종열스님)의 부처님사리 친견대법회가 오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친견하려는 불자·일반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부처님사리는 8월17일 서오층석탑 해체·보수작업 도중에 발견된 것으로 모두 22과에 이른다. 서오층석탑에서는 부처님사리외에도 신라시대 화엄경 사경으로 추정되는 지류문치와 사리장엄구, 청동제 불상 금형틀, 칼, 금동제 방울등 모두 16종 72점의 국보급 유물이 대거 발견됐으며 이 모습을 담

은 사진전시회가 보주에서 함께 열리고 있다.

종열스님은 지난달 24일 사리친견 입제식에서 “외형적이고 행사위주의 사리친견 대법회가 아니라 불자를 가슴가슴마다 부처님의 깊은 사상의 울림이 될 것”이라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광명정대한 세상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혜은·오공스님등 열민

조계종 초심호계위

주간 ‘시대불교’ 발행인 혜은스님이 열민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위원회(위원장 원스님)는 지난달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혜은·오공·진관스님등 열민 처리하고 사찰재산을 불법처분한 흥통사 전주지 일각스님, 정암(승가대 전총무과장) 보장·백담스님(내제직, 성일스님(총통사 전주지)에게 공판징지 3년을 징계했다.

조계종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 첫 워크숍이 오는 11일 오후 2시~5시 ‘지방승가대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강화 마니산 改名 교계·주민 ‘반발’

인천광역시 ‘마리산’ 결정...행정소송 제기 움직임

강화군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가 1천년이상 사용하던 강화 마니산(摩尼山) 지명을 ‘마리산’으로 개명키로 결정해 지역주민과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마니산정기 계승발전보존회

박덕성회장은 지난달 25일 불교방송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과 7월26일 강화군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가 각각 강화 마니산을 마리산으로 개명키로 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왜곡된 지명으로 반드시 취소

되어야 한다”며 “서명운동과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화군과 인천시가 마니산 지명을 개명하게 된 것은 기록교계 등 단체로 알려진 마리산 이름 되찾기추진위원회가 “마니산 지명은 일제가 민족정기 말살을 위해 마니산에서 바꾼 것이다”며 지명 개명 요청에 따른 것이다.

립지리인 중앙지명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으며 마니산 정기 계승발전 보존회를 비롯 마니산조화, 강화불교사 암연합회 등이 마니산 개명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구독신청: 737-0693



본사 김광삼사장(왼쪽)과 불광산사 실정스님(오른쪽)이 협정을 맺은뒤 성문스님 회초를 펼쳐보고 있다.

본사, 대만 불광산사와 교류협정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와 대만 불광산사(주지 실정)는 지난달 26일 구룡사에서 불법홍포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고 협정서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삼사장과 실정스님은 협정서를 통해 앞

으로 출판물, 정기간행물, 서지정보, 기사를 교환하며 연구 교류, 연구 및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실정스님은 성문스님 회초와 <보문(普門)> <각세(覺世)> 합본을 본사에 전달했다.

범어사, ‘아파트 건설’ 허용

15억 불사 경동건설 부담 합의...일부 신도 강력 반발

최근 범어사(주지 정관)와 경동건설(사장 김재진) 양측이 “층수를 낮춰 아파트를 건립케 하고 범어사 불사 소요경비를 경동건설측이 일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상호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사 경동아파트 대책위 집행부는 지난달 23일 휴휴사에서 본말사 주지회의를 개

최한 자리에서 “법적대응으로 아파트 건립을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경동건설측과 이같은 내용으로 논의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범어사 부지에 대규모 불교회관, 문화시설 건립과 4차선 도로신설 등의 불사에 소요되는 15억 상당의 축량경비를

경동건설측이 지원해 준다면 범어사는 5층 정도 층수를 낮춰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당초 아파트 건립의 전면 백지화라는 입장을 뒤집은 협상안에 대해 신도와 일부 스님들은 범어사가 경동건설측과 야합했다고 격렬히 비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티벳 사추 린포체 초청법회

17일 용인 등도사

경기도 용인 갈마산 등도사(주지 해성스님)는 오는 17일부터 2일간 등도사 대법당에서 ‘티벳 라마 사추 린포체 초청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 초청된 사추 린포체는 제5대 린포체로 티벳 도코람에서 출생했으며, 현재 14세로 체계적으로 불법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성스님은 “불은 보은하고

많은 불자들에게 보다 큰 불법의 인연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온 나라에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통일기원 영산대재

의정부사암연합회(회장 김혜승)는 의정부시민의 축제인 회문문화제를 맞아 ‘남북통일 기원 영산대재’를 오는 6일 의정부 시청앞 잔디광장에서 봉행한다.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경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6-0965
광주보통소	전화	0631-281-2534
경주보통소	전화	0416-856-3280

•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및 범문 모음집 •

깨침의 노래

한권의 책으로 수많은 고승들과 만난다!!

- 총 380여수의 ‘깨침의 노래’ 국내 최초 출간!!
- 한국과 중국을 통틀어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법문을 총망라한 ‘깨침의 노래’ 불교계 최초 출간!!
- 개인·단체·학교·사찰 단위로 단체 주문 해도!!
-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후 율은 큰스님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큰스님들의 행장을 말해주는 법문 등을 편저자 권성구님이 전국 사찰을 수십년간 순례하여 모은 380여수의 주옥같은 노래!!
-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읽어야 할 책!!
- ‘깨침의 노래’는 스님과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며,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씻겨주는 청량제!!

◎ 연속 재판 // 절친리 판매중 // 10부 이상 법포시를 원하시는 스님·불자·일반인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가의 10%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95 불교 출판계 스테디셀러!!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열반송·범문등을 소장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개정 보충판에 수록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전화: (02)725-6752-4
팩스: (02)725-6920

신국판/450쪽/219, 500원

모시는 인연만으로도 큰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금강경 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원력병풍 - 금강경 표구비만으로 드리는 윤달맞이 특별보급으로 가격부담없이 가까이 모실 수 있습니다.

윤달윤달 특별보급 50점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원력병풍 - 금강경 표구비만으로 드리는 윤달맞이 특별보급으로 가격부담없이 가까이 모실 수 있습니다.

▲ 전면: 원력 높으신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林泉가사 진품 불성 연화도

■ 규격: • 높이: 5자 8치 (약 175.8cm)
• 폭: 14자 (약 424.3cm)
• 재질: 고급스기목/양면 고급비단/소묘사 특수지

■ 특별보급가 ₩ 490,000 (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구입문의

기회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참조 후면에 팔상목(석가세존 일대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꾸며드립니다.

• 콜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 수신자 부담)